

# 우리학교 교정에 내나무가 있지요

광주 서광중학교에서는 지난달에 식목일을 맞이하여 푸른숲선도원들이 모여서 교정에 있는 나무중에서 내 나무를 가지고 보살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. 지난 5월 6일에는 숲해설가 선생님들과 함께 내 나무에 대한 해설과 함께 교정에 있는 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

서광중학교의 자랑인 등나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

- 등나무는 철과 같은 종류로 설명을 듣는 내내 등꽃향이 가슴까지 새~아 와 닿았습니다.



은행나무와 겹 빛꽃에 대하여 듣고 있는 모습

- 은행나무는 공룡시대부터 살아온 생존경쟁의 승리자라고 합니다. 겹 빛나무는 유전자 조작으로 꽃을 아름답지만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.



### 교정에서 배운 나무들을 인터넷 자료로 찾아보기

- 교정에서 관찰한 나무들을 인터넷을  
통하여 찾아보고 더 많은 자료를 감상하는  
시간을 가졌습니다.

"좋은 나무와 맑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정이 있어 행복합니다."

(글:사건/남선화(광주 서광중학교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))

### 내 나무를 갖고 보살피면서...

광주 서광중학교 2-2 오한나

오늘은 숲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조사하시는 선생님 두 분이 오셔서 우리학교에 있는 꽃과 나무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. 설명을 들으면서야 알게 되었지만, 우리학교에는 참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다. 내가 아는 나무의 이름들이 들릴 때면 더 귀를 기울이고 설명을 들었다. 호랑이가시나무, 옥향, 가이즈카향나무, 팡팡이나무, 사철나무 단풍나무는 제가 졸업한 장산초등학교에도 있던 나무들이다. 장산초등학교에서는 해마다 '꽃, 나무 이름 알아맞추기 대회'를 하였는데, 그 때 자세히 관찰해 두었던 나무들이, 오늘 설명을 듣는데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. 그리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내 나무인 '동백나무'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쌓아 둘 수 있게 되었다. 동백꽃 속에 도 꿀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것과 11월부터 꽃이 피어 한겨울 추위에도 아름다움을 뽐내는 강한 나무라는 것, 동백새가 씨를 옮겨주어 번식을 한다는 것 옛날에는 불을 밝히는데도 여자들의 머리를 곱게 하는데도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등을 새롭게 알게 되며 더욱 내 나무인 동백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더해졌다.

비록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우리학교의 나무들과 학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키워주기에 10시간보다 값진 시간이었다.

날씨가 좋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참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다. 아울러 좋지 않은 날씨인데도 나무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

\* 푸른숲선도원 활동일지를 보내주신 광주 서광중학교 남선화 지도교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